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団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병자년을 생약인의 행복

다. 대담의 병자년이 밝았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생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활약이 많았다. 한류생약협회의 노력으로 판매하는 생약매장의 약 50%가 생약인이라 해 직한 행사들이 많았다. 부산항의 새 단장을 전문으로 하는 생약매장을 소개한다.



지령 200호 특집 12면 발행

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제1회 생약매장 내의 노년층을 위한 생약제품을 소개하는 부록을 만들었다.

제2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도 대성공리에 막을 내렸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리 생약의 우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시킨 중요한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밖에, 지령 계약재배, 한약재의 유통과 관련된 생약매장 건설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회와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까지 펼친 제1회 하계수련회도 화창한 분위기 속에 시도한 행사로 의미가 깊다.

생약매장이나 간접협회를 파견하여 부속조직으로 구성하여 우리 생약매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부산 생약매장의 보급과 우수생약매장의 확충을 위한 생약매장 홍보사업에 착수하여 생약매장의 우수성을 생약매장 건설사업

을 계획하고 있다. 또 우수생약매장을 생약매장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사업 등 국산 생약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모색에 주력함으로써 생산자 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져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생약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매지원자금신청
부산항유류공사는 1천3백50원 규모의 '96 농약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우수생약매장 수매지원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오는 1월 20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794-3014 로 문의.

엑스제 사용자제
최근 한류생약협회는 생약재배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입엑스제 대신 국내산 한약재를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제약회사들에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 ### 주요시면
- 규격화시행을 앞두고 3면
(관리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 생약업계 10대 뉴스 4면
 - **특집** 좌담회
개방화시대 국내 생약농업의 진로... 6~7면
 - 무엇을 재배할 것인가..... 9면

謹賀新年

우리 선조들은
아궁이의 불지한통도 꺼뜨리지 않고
정성스레 지켜가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불씨를 지펴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원인
생약재의 종자 종근 하나라도
소중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